

현안과 과제

■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성과와 특징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18일 서울을 방문한다. 체육 교류는 국가간 화해와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평포외교, 동서독간 체육교류, 1988년 서울올림픽의 동서 양 진영 참여 등이 좋은 예이다.

체육 교류를 비롯한 교육·문화·종교 분야의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정치·경제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 신뢰 분위기 조성,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1985년 시작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남북간 회담과 방문 인원도 체육이나 종교 부문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와 특징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은 급감하였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중단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상호 방문 인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은 2007년 대비 각각 1.1%, 33.9% 수준에 불과하였다.

■ 분단국 사회문화협력 사례 연구

(동서독 사례의 특징) 첫째,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서독 정부는 청소년들의 동독 견학 여행과 예술인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둘째, 교류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동서독은 1970년 우편협정을 시작으로 1986년 문화협정 등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가 대폭 확대되었다. 셋째, 도시간 자매결연은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73건의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통일 후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경지대의 재난 대비 정보 교환과 수자원 공동관리,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대만 사례의 특징) 첫째, 민간 창구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를 통한 양안간 문화·학술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둘째, 민감한 사건 발생시에도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를 지속하였다. 1994년 천도호사건, 1995년과 1996년 1·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와 2003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는 중단없이 지속하였다. 셋째, 협의의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였다. 2006년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을 시작하여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참가하는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과제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복원이 시급하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역사 공동 복원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셋째, 민족 화합 과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남북 단 일팀 구성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과시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무심기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관광, 역사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래 통일 세대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협력 사업의 독자성 확대를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개관

- (최근 동향) 200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0 남아공월드컵' 예선전 참가 이후 4년 3개월 만에 북한 선수단이 남한 방문 예정
 -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 방문 : 북한 여자 선수단이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이달 18일 서울을 방문 예정
 -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농구연맹(KBL)은 오는 8월 북한 남자농구단을 초청해 남북 농구대잔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체육교류의 의미와 중요성) 체육 교류는 국가간 화해와 대화의 촉매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 “스포츠에는 국경도 이데올로기도 없다” : 체육 교류는 평화유지 및 상호이해 증진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에케체이리아’(ekecheiria) 전통 : 도시국가간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그리스 시절 올림픽 기간 중 모든 전쟁을 중단
 - 체육 교류의 예 :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평풍외교, 동서독간 체육교류, 1988년 서울올림픽 동서 양 진영 참여 등
 - 남북 체육교류의 의미 : 평화공존과 남북간 신뢰 회복은 물론, 민족의 일체감 조성 및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2008년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64.6%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남북 체육교류의 중요성 : 민족 화합 과시, 문화행사의 역사와 전통 계승, 타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중요한 역할 수행
 - 민족 화합 과시 :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2000년 시드니올림픽 등 국제종합대회 8차례 공동 입장 등
 - 특히, 공동입장의 경우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막대한 파급력을 지님
 - 문화행사의 역사와 전통 계승 : 1933년 시작된 경평전, 1958년부터 시작된 체육회담 등 긴 교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방북시(5.11~14) 김적일 국방위원장 과 합의하여 같은 해 9월 개최한 남북통일축구대회는 전통 계승의 의미도 있음
 - 타 분야와 시너지 효과 창출 : 방송 중계를 통한 언론 교류는 물론, 후속 이벤트 행사로 문화·예술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용이
 - 특히, 방송을 통해 교류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참관하고 시청하는 다수에게도 간접적 교류 효과 창출 가능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의 의미)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 제공 가능
-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이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¹⁾를 말함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사업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의미와 중요성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등의 의미를 지님
 - (민족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여 사회 통합의 기초를 제공
 -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도움²⁾
 -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2005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김 위원장 방북 면담(7. 16)시 8. 15를 계기로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제의를 전달하여 같은 해 8월 14일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성사

1)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2012.7.26, 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2012년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4.3%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2.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사업의 특징과 성과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정치적 상황에 좌우,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와 인원 최다, 참여정부 시기 사업 승인 집중 등

①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와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이 이루어짐³⁾

· 2007년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 겨례 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②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를 시작, 총 54건의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46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 2008년 2월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을 끝으로 중단

· 총 54건의 회담 가운데 교육학술 분야 4건,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4건을 제외한 46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 (교육학술 분야)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4차 실무접촉(2005. 9~2007. 4) 등 역사 공동 복원 사업 추진

·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2005. 4), 북한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3),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5),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 12)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관련 회담 추이 >

(단위 : 건)

연도	79	84	85	86	87	89	90	9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건수	4	3	1	2	1	9	7	7	2	1	1	6	3	6	1	54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이트(<http://dialogue.unikorea.go.kr>) 참고

3)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 17~36.

③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 및 인원 최다) 사회문화협력관련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61건, 9,201명으로 가장 많음

-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방문 건수는 총 1,664건으로 25,615명이 상호 왕래함
- 전체 방문건수 대비 비중 : 종교(27.7%), 체육(20.5%), 교육학술(19.1%), 언론출판(18.4%), 문화예술(9.9%), 과학기술(4.4%)
- 특히, 북 → 남으로 방문은 체육분야가 전체의 73.5%를 차지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현황(1989년~2012년) >

(단위 : 건, 명)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계
남→북	307 (3,697)	157 (2,446)	317 (4,114)	458 (9,142)	303 (2,949)	73 (400)	1,615 (22,748)
북→남	11 (101)	8 (540)	24 (2,107)	3 (59)	3 (60)	0 (0)	49 (2,867)
합계	318 (3,798)	165 (2,986)	341 (6,221)	461 (9,201)	306 (3,009)	73 (400)	1,664 (25,615)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④ (참여정부 시기 사업 승인집중)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통일부 승인 사업 156개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승인 사업이 120건

- 1990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156개임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3건에 불과
- 국민의 정부 5년간 28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참여정부 시기 120건으로 급증
- 2008년 이후 급감하여 지난 5년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5건에 그침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 >

(단위 : 건)

연도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0	11	합계
건수	2	1	5	5	5	6	7	13	16	47	26	18	3	1	1	156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4)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 (실적 종합)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 공연으로 시작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과 분야별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성과를 도출

-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역사와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 분야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
 -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북통일음악회 개최 등(☞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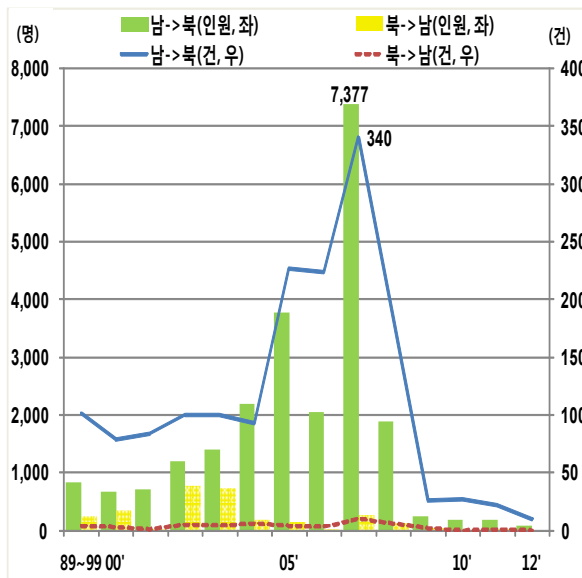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종합표) >

분야	특징	성과	한계
종교	- 2008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접촉을 지속한 유일한 분야	-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 교류의 비대칭성,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
체육	-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	-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 왕래 추진	- 교류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 역사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 역사 유적 발굴 UNESCO 등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	-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
문화예술	-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
과학기술	- 북한의 우수한 인력이라는 인적 인프라 구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도적 한계 내재	-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 효과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도적 제약
지방자치단체	-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농업 분야 협력 사업으로 발전, 사회문화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진	-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확대 모범 사례 구축, 남북 공동 대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	-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미흡

○ (최근 5년간 사회문화협력 추이)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며,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협력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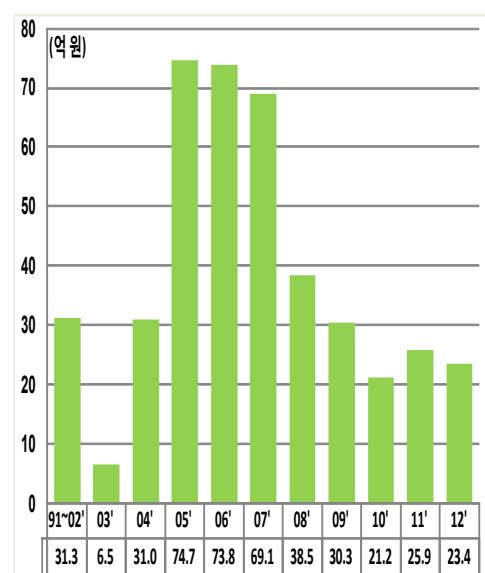
-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 급감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2007년 남북간 교류 건수 340건, 교류인원 7,639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이후 급감
 - 2012년에는 남북간 교류 건수 10건, 방문인원 81명(2007년 대비 1.1% 수준)에 그침
- 사회문화협력 지원 급감 : 200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⁵⁾도 급감하여 2012년에는 23.4억 원 집행(2007년 69.1억 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
 - 2009년 이후에는 거래말 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등 2건에 대한 지원만으로 명맥 유지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협력 지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5)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10조 4,121억 원 집행, 이 가운데 사회문화협력 지원은 0.41%에 해당하는 425.7억 원이 집행

3. 분단국 사회문화협력 사례 연구 :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경우

1) 동서독 사회문화협력

-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가 1975년 이후 주로 동독 문화예술인이 서독에서 연주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점차적으로 교류가 확대되었음
- '접근을 통한 변화' 일관되게 추진 : 서독은 동독정권의 부정적·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독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긴장 완화와 동질성 유지에 주력
- 재정적, 정책적으로 민간의 역할 지원 : 서독은 민족 동질감 인식을 위한 청소년 교류와 동서독간 예술인 교류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독 교회를 통해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
 - (청소년 교류)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 청소년 여행에 대한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 (예술인 교류) 서독은 동독예술인이 서독을 방문하면 일비를 지불, 교류협력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50%씩 부담
 - (인도적 지원)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서독 교회가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과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송환
- 교류의 제도화 : 동서독은 1970년 우편협정, 1971년 베를린협정, 1972년 통행협정, 1972년 기본조약, 1974년 체육·보건협정, 1986년 문화협정, 1987년 방송협정 및 과학·기술협정 등 사회문화 교류 관련 각종 협정 체결
 - (문화협정 체결) 1986년 5월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의 개념을 연극·문학·음악·미술 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

6) 기본조약의 후속협상으로 1973년 11월에 개시된 문화협상은 13년이 지난 1986년 5월에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 이는 동독이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이우영 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1. p. 17 참고.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매년 600여 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나, 1986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 6개월간(1988. 10~1989. 3) 563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짐)
- 협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계적 추진 : 양측은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 교류협력 내용은 예술, 학술, 교육 분야 비율을 2:2:1로 정함
 - (1986~87년도 첫 번째 사업계획) 동서독 공동협력사업으로 22개의 프로젝트 합의,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나 방문공연이 주를 이룸
 - (1988~89년도 두 번째 사업계획) 학술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프로그램 추진
- 지자체간 상호 협력은 통일의 촉매제 역할 수행 : 1986년 4월 동서독간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1989년 동독 붕괴시까지 총 73건 성사
 - (도시간 자매결연) 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이어져 통일 후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
 - (재난에 대비한 상호 협력) 1973년 9월 동서독은 국경지역에서의 홍수, 화재,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발생, 환경오염 등에 대해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수자원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
 - (접경지역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접경지역 지자체간 갈탄, 천연가스 등 공동개발 사업 및 발전소건설사업 등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⁸⁾

< 동서독의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내용 >

분야		내용
체육문화	교환경기	- 볼링, 축구, 탁구 등의 종목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 유도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 초청강연 등
	신문교환	- 16개 도시에서 지방신문 상호 교환
전문가회의		- 지방자치 및 지역행정에 관한 의견 및 경험교환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도시계획, 노후화된 주택정비, 도로교통계획 · 환경문제, 자영수공업자, 의사, 노동자 및 노조원 의견 교환 등
청소년 상호 방문		- 15~30세 사이의 청소년 상호 방문

자료 :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723~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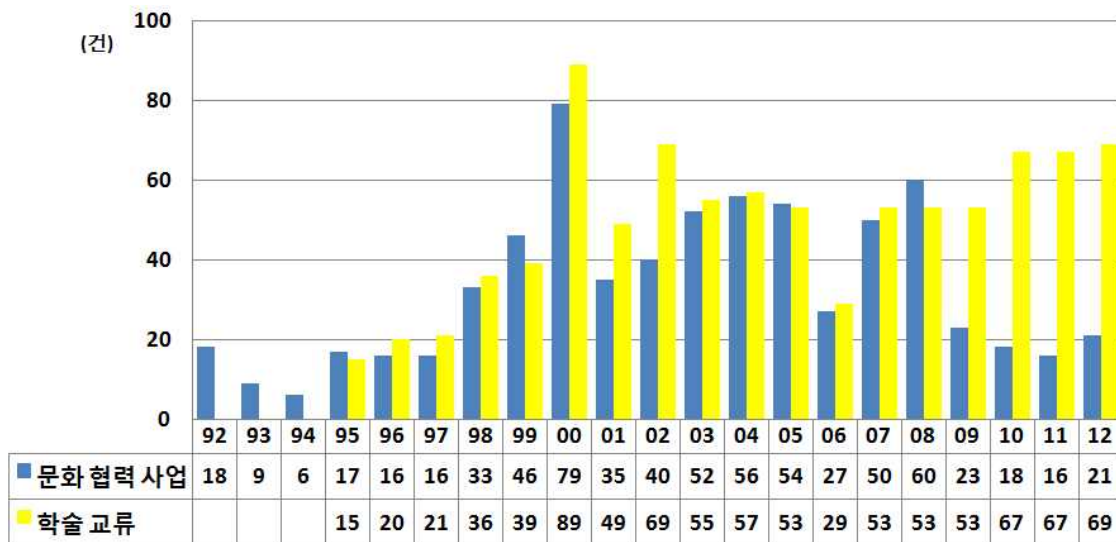
7)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 119.
 8) 서독 헬름슈테드(Helmsted)와 동독 하르브케(Harbke)는 1976년 이후 총 1,500만 톤 규모의 공동갈탄개발과 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 공해를 유발하는 동독 하르브케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서독 헬름슈테드에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헬름슈테드는 하르브케로부터 갈탄을 수입하는 대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동독측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협력 추진. 이상준 외, 『통일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2000. p. 16.

2) 중국-대만의 사회문화교류

○ 1988년 7월 대만 정부가 '현 단계 대륙정책안'을 통해 양안간 사회문화교류 지침을 마련하면서 중국-대만간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음

- 민간 창구를 통한 교류 활성화 : 1990년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가 설립되고, 1991년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설립되어 양안간 민간 대화창구가 개설되고, 1993년 '왕고회담(汪辜會談)⁹⁾이 개최되면서 양안간 교류가 활성화됨
 - 1993년 이후 양안간 교육, 사회과학, 영화, 과학기술, 영상 부문 등 문학과 예술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대
-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의 지원은 중단없이 지속 : 대만 정부는 문화 협력 사업과 학술 교류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2건의 문화 협력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894건의 학술 교류를 공동 지원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¹⁰⁾ 지원 사회문화 교류 추이 >



주 : 문화협력사업은 MAC 지원, 학술 교류는 MAC 공동 지원임.

자료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사이트(<http://www.mac.gov.tw>) 참조.

9) 왕고회담 : 중국과 대만이 양안 접촉 창구로 각각 설립한 해협회와 해기회 간의 회담을 말함. 해협회 회장 왕다오한(王道涵)과 해기회 이사장 고전푸(辜振甫)의 성을 딴 '왕고회담'으로 불림

10)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MAC: Mainland Affairs Council)는 우리의 통일부와 유사한 기관임.

- 민감한 사건 발생시에도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 지속 : 1994년 천도호사건¹¹⁾, 1995년과 1996년 1·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와 2003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
 - (천도호 사건) 대만당국이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교류 협력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 회복
 -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선 시기에도 대만 언론사의 제8기 전인대 4차회의 취재가 허용, 대만 기자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주요 간부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¹²⁾

- 협의의 정례화 :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은 2006년 4월 제1차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을 시작으로 연례적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
 -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주도로 두 정당 및 양안 기업계, 학계, 상공계 인사 400여명이 참가하는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

<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 개최 추이 >

	내용
제1차 (2006. 4, 베이징)	- 양안간 직접통항과 농업교류 촉진 등을 포함한 7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제2차 (2006. 10, 보아오)	- 양안간 농업 협력 확대 강화 합의
제3차 (2007. 4, 베이징)	- 양안간의 직항 노선 개설과 대륙 주민의 대만 관광 협의 · 양안 직항 전세기 운항 확대, 대만학생의 대륙 대학 진학 적극 지원 등
제4차 (2008. 12, 상하이)	- 양안간 금융 협력 촉진 협의
제5차 (2009. 7, 창사)	- 양안 문화·언론교류, 교육협력 강화, 문화교류협정 체결 등 협의 · 중국어사전 공동 편찬, 양안 영화·TV방송 교류 협력 심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협의
제6차 (2010. 7, 광저우)	- 양안간 경제, 무역, 교육, 과학기술, 에너지 등 실질적 협력 강화 합의 · 양안간 대학 등 학위 인증 추진, 공동연구센터 건립 장려, 언론간의 지사 등 상설기구 추진, 양안간 공동 사전 편찬과 학술 등 전문용어를 통일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합의
제7차 (2011. 5, 청두)	- 양안간 원자력 안전 협정 강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적극 추진 합의 · 양안간 문화, 금융, 농업, 투자, 교육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 강화 합의
제8차 (2012. 7, 하얼빈)	- 양안간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 노력 확대 합의 · 양안간 관광, 문화, 금융, 농업, 투자, 교육·청소년 교류뿐 아니라 출판과 영화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합의

자료: 내외신 보도 종합.

11) 1994년 3월 절강성 천도호에서 중국행 유람선에 탄 24명의 대만 관광객과 중국인 안내원 및 선원 8명 등 32명이 중국 도적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
 12) 또한, 같은 해 대만고등학교 남자배구팀과 여자농구팀이 심양, 북경, 서안 등지에서 친선경기를 개최, 중국인 민대학과 북경사범대학도 대만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64명의 대표단과 교류

-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0년 양안간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체결 및 2013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등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 2010년 대만 지혜재산국과 중국 국무원은 「해협양안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를 체결
 -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문화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 특허 및 상표권의 상호 승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제반 사안들에 관해 합의함
 -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13년 6월,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는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로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문화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 개방에 합의

4.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추진 과제

-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첫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 복원되어야 한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 5.24 조치로 교류가 단절되어 각자 작업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의 인적 교류 우선 재개 시급
 - 동서독의 경우에도 '그림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을 통독 직전까지 지속, 19세기 독일어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도 진행
 - 중국-대만도 중국사전협회와 대만중화문화총회가 중국어 사전 공동 편찬을 추진, 중국·대만 학자 200여 명이 15개월만에 2012년 8월 '양안 상용사전' 발간

- 둘째, 역사 공동 복원을 위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동북아 역사·문화 전쟁에 대응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
- 동서독의 경우, 독일 중세사부터 현대사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역사 연구는 양측 학자와 학술 당국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진행

- 셋째, 민족 화합 과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과시
- 남북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 동서독의 경우, 1956년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단일 팀 구성하여 출전

-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나무심기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구 설립 및 추진 계획 발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 추진
- 동서독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의 그뤼네스반트¹³⁾에서 상호교류협력과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귀동식물 보전을 위해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종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섯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운영 사업 등 주로 종교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

13) 동서독간 국경선은 총 1,393km로 사람의 통행이 불허된 지역이었으며, 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였음

- 동서독의 경우 동독에 위치한 76개의 교회 부속병원은 서독 교회의 지원으로 우수한 의료수준 유지
- 프라이카우프도 서독 교회가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과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송환한 방식으로 추진

- 여섯째,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
 - 동서독의 경우 청소년의 대동독 여행 등 청소년 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중국-대만의 경우에도 양안간 대학생 교류 및 유학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교류를 중시

- 일곱째,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11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 이를 통해 남북 저작권 교류의 창구도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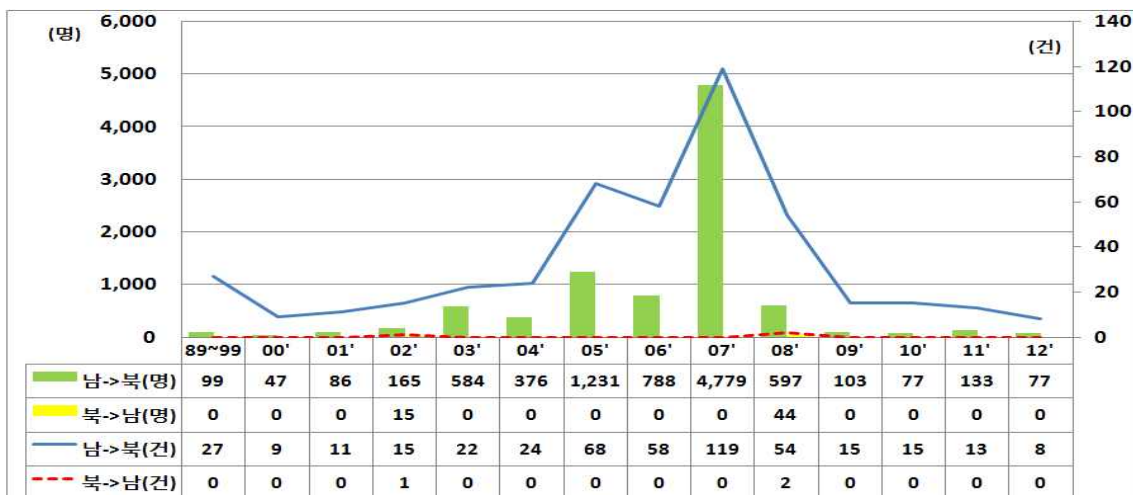
이해정 연구위원(02-2072-6226, hjlee@hri.co.kr)

< 별첨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성과와 한계

① (종교 분야) 사회문화협력 중 가장 지속적이며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짐

- **특징** : 남북 교류가 급감한 20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을 지속한 유일한 분야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이 거의 중단되었던 2012년에도 조계종은 신계사 낙성 5주년 합동법회, 천태종은 영통사 낙성 7주년 합동법회, 천주교는 장충성당에서 통일기원 합동미사를 개최하는 등 종교계의 교류는 이어짐
- **주요 사업** :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된 남북평화통일협의회에서 남북 기독교간 접촉이 최초로 성사된 이래로 다양한 교류 추진
 - 천태종은 2003년부터 개성 영통사 복원을 추진, 조계종에서도 2004년부터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추진, 기독교에서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추진
 - 사업 완료 후 복원된 영통사, 신계사, 봉수교회 등에서 지속적·정기적 집회 개최
- **성과와 한계** :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문화재 보존 등에 기여한 성과도 있으나, 교류의 비대칭성과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에 그쳤다는 한계도 존재
 - **(성과) 교류의 지속성** :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가 거의 단절된 시기에 도 교류를 지속
 - **문화재 보존에 기여** :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 사업은 문화재 보존의 의미도 있음
 - **(한계) 교류의 비대칭성** : 남한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지원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상호 왕래하고 교류하는 교차방문이 필요
 -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 :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에서 종교문헌 및 종교 문화재 교류로 한 단계 발전 필요

< 종교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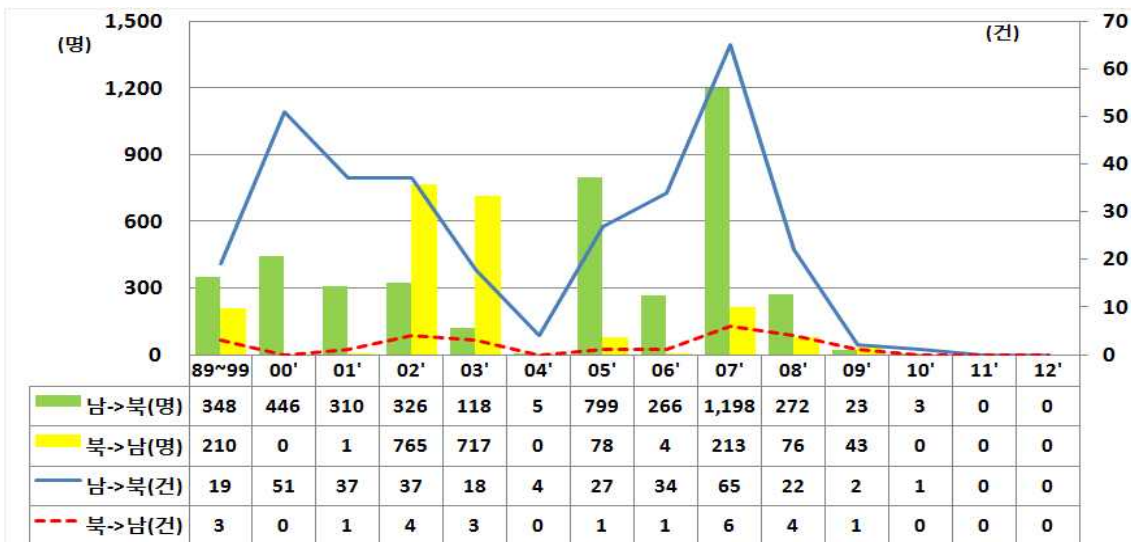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② (체육 분야) 종교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된 분야로 통일 축구대회, 공동응원단 등 다양한 종목에서 지속적인 왕래가 이루어짐

- **특징** :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로,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임
- **주요 행사** : 1990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와 1991년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 1999년 류경정주영체육관 착공 및 현대 남녀농구단의 평양통일농구경기, 2000년 금강산 자동차질주경기대회, 2002년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¹⁴⁾ 등
 -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참가¹⁵⁾
- **성과와 한계** : 주요 국제대회 공동 입장과 대규모의 상호 왕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요한 성과를 거둔 반면, 체육 교류의 정례화는 이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성과) 국제대회 공동입장 :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큰 주요 국제대회에서 총 8차례 공동입장으로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한민족임을 과시
 - 대규모 상호 왕래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같은 대규모 북한 체육관계자들 참석 행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대규모 상호 왕래가 이루어짐
 - (한계) 체육 교류의 정례화 미흡 :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0년 이후 교류가 중단, 주요 국제대회 공동입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체육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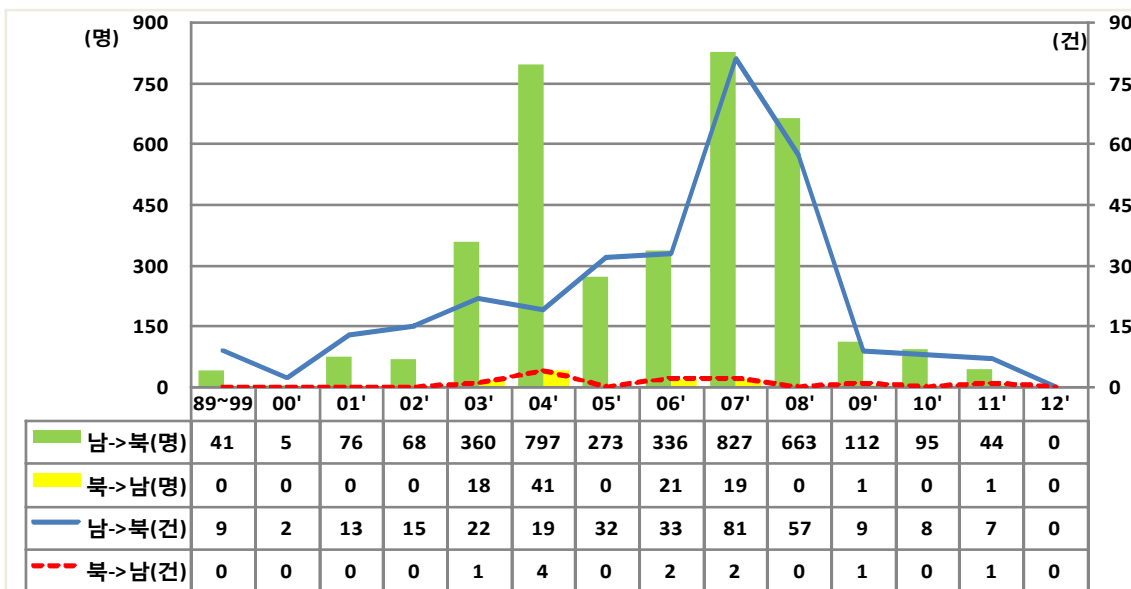
14)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방북시(2002. 5.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최 합의

15)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인 리설주도 이 때 응원단으로 방남한 것으로 알려짐.

③ (교육학술 분야) 1990년대 초부터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 추진

- 특징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역사 분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 주요 사업 : 2004년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학술 토론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구성, 북한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 2007년 남북여성대표자모임, 남북교육자상봉모임, 남북관계 발전과 학자들의 역할, 민족주의와 항일투쟁, 민족어 발전의 실태와 전망 등에 관한 다양한 남북학술토론회 개최, 2008년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등
- 성과와 한계 : 역사 유적 발굴 사업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육 분야의 협력은 여전히 단순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성과) 역사 유적 발굴 : 2003년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 2013년 개성역사지구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2007~2011),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2007~2010)등 장기 사업 추진
 - (한계)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 교과서 용지와 학용품 등 교육 물자 지원도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교육 인프라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사업 등 개발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교육학술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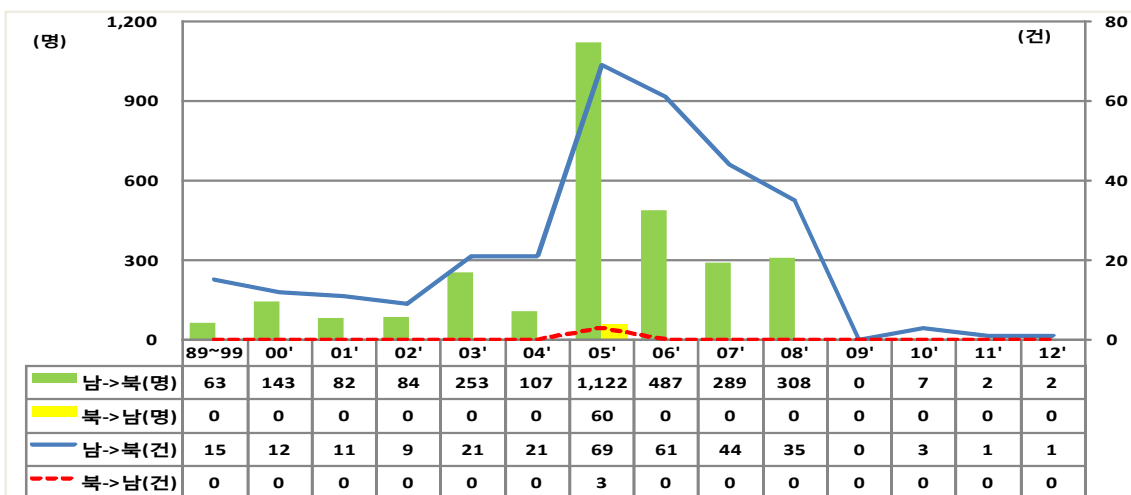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④ (언론출판 분야)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교류가 추진

- 특징 : 남북간 공동 제작 및 공동 작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나, 저작권 분쟁 관련 단일 창구 부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갈등도 초래
- 주요 사업 : 1998년 중앙일보의 북한문화유적 답사 및 2000년 언론사 사장단 46명 방북 북한언론기관 대표들과 남북언론교류협력에 관한 5대항 합의, 남북 방송인토론회(2003년, 2005년)
 - 2003년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SBS 류경정주영체육관 개장기념 '통일농구대회' 방송, 2007년 KBS 드라마 '사육신' 방영
 - 남북간 저작권 관련 협의 진행 및 '조선향토대백과' 공동 출판 등의 교류 추진(2005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2005~2012) 등
- 성과와 한계 : 방송을 통한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및 민족 언어 및 문학의 공감대 형성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저작권 분쟁 해결 창구 미비 등의 한계도 존재
 - (성과) 북한 주민 참여 유도 : 2003년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SBS 류경정주영체육관 개장기념 '통일농구대회' 방송 등은 북한 주민들도 참여
 -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 : '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년), '통일문학'지의 발간(2008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와 문학의 동질성 회복 노력 지속
 - (한계) 저작권 교류 관련 창구 미비 : 통일문학전집(2003년)과 황석중 소설 황진이(2005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발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간 단일 창구 필요

< 언론출판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⑤ (문화예술 분야)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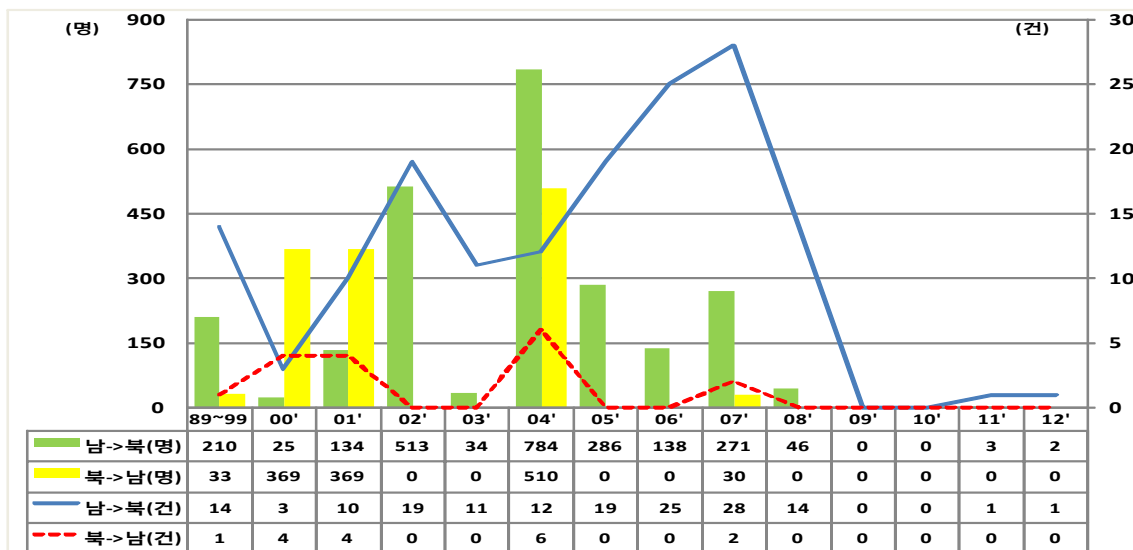
- 특징 : 1985년 고향방문 예술단 서울-평양 공연으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물꼬를 트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15 공동행사 등 다양한 쌍방향 교류행사 추진
- 주요 행사 : 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평양공연, 윤이상통일음악회, 2002년 KBS고향악당 평양공연, 2006년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등을 개최
 - 1990년 뉴욕의 남북영화제에서 남북영화인간 최초의 교류가 성사된 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임꺽정’ 등 북한 영화 수입, 방영
 - 2003년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살아있는 령혼들’, 대중상영화제에서 ‘청자의 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혼부부’ 등을 상영
 - 2012년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방북,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동무, 날아가다’, 광주국제영화제에서 ‘평양에서의 약속’ 상영 등 비교적 최근까지 교류 추진

< 남북공동행사 개최 추이 및 참가 인원 >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2001	- 금강산(6.15~16) : 남 450, 북 200, 해외 20	- 평양(8.15~21) : 남 337, 북 223
2002	- 금강산(6.13~16) : 남 217, 북 350	- 서울(8.14~17) : 남 530, 북116
2003	- 사스(SARS)로 인해 미개최	- 평양(8.14~17) : 남 339, 북 400
2004	- 인천(6.14~17) : 남 1,200, 북 126, 해외 39	- 조문파동, 이적단체 소속원 참가 보장 요구로 무산(평양 예정)
2005	- 평양(6.14~17) : 남 300, 북 200, 해외 100	- 서울(8.14~17) : 남 400, 북 200, 해외 150
2006	- 광주(6.14~17) : 남 483, 북 147, 해외 145	- 수해로 미개최(평양 예정)
2007	- 평양(6.14~17) : 남 284, 북 300, 해외 132	- 을지훈련 등으로 북한 불참 통보(부산 예정)
2008	- 금강산(6.15~16) : 남 249, 북 100, 해외 77	- 각자 개최

주 : 2009년 이후부터는 각자 개최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 180 참고 일부 수정·보완.

<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 성과와 한계 : 남북공동행사 등 쌍방향 교류가 추진되었다는 성과도 있으나, 교류가 일회성 이벤트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도 있음
 - (성과)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 2001년부터 남북은 6.15공동행사를 남북 주요 지역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북간 쌍방향 교류를 추진
 - (한계)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로 추진 : 공연 교류는 특히 더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상황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한계를 보여줌
 -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 : 각각의 영화를 제한적으로 상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기술 분야의 협력 등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음

⑥ (과학기술 분야) 북한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 사업 개발 등 발전적 협력 관계 모색

- 특징 : 북한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라는 인적 인프라 여건은 우수하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한계 내재
- 주요 사업 : 2001년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추진, 뽕롱뽕롱 뽕로로, 게으른 고양이 덩가 공동 제작 등
 - 2006년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진행,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
- 성과와 한계 : IT 분야에서 대체로 성공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북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도적 제약이 한계로 지적
 - (성과)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 각종 S/W 개발 교류, 뽕롱뽕롱 뽕로로 공동 개발 등 IT 분야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인력 양성 효과 : 북한 과학기술 인력 교육과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등
 - (한계)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도적 제약 : 첨단 장비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와 남북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대미 수출 통제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강력한 제약 요인 존재

- ⑦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 2000년대 초반 제주도와 강원도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광역시도에서 크고 작은 협력 사업 추진, 2008년 이후 정체
- 특징 :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은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된 데 반해,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지자체들의 교류협력사업은 주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농업 분야 협력 사업으로 발전
 - 성과와 한계 :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확대 사례 구축과 남북 공동 대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 등의 성과와 함께,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미흡이라는 한계도 있음
 - (성과)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확대 사례 구축 :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형성한 지자체들은 2003년 제주도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2005년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등 상호 이해 증진 계기 마련
 - 남북 공동 대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 : 강원도의 병해충 방제 사업이나 경기도의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대처는 남북한 모두에 필요한 사업임
 - (한계)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미흡 : 지역간·주민간 체육·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실질적 교류는 미흡

< 지방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 주요 현황 >

지자체	주요 사업	진행 상황
서울시	- 서울-평양 축구대회 추진 -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개최(2006) -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 발굴(2006) - 평양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2008)	미성사 완료 완료 계속사업
부산시	- 부산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추진(2005) - 평양 항생제공장 건립 지원(2007)	미성사 완료
인천시	-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북측 참가(2005)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2007)	완료 완료
울산시	- 전국체전 북측 지역대표단 참가 추진(2005)	미성사
강원도	-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 -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2005) -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2006) -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2007) - 안변연어사료공장 완공(2008)	계속사업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경기도	- 개성 산림녹화사업(2007) -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2008) -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완료 완료 계속사업
제주도	- 감귤보내기 및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2003)	계속사업 완료
충북 제천	- 제천시-북고성군 남북협력사업 : 북고성군(삼일포) 과수원 조성 등	계속사업
나주시	- 개성시와 교류 추진	미성사
포항시	- 청진시와 자매결연 등 교류 추진	미성사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각호 참조.